

15분 모의고사 8회 정답 및 해설

(1009 모의평가)

문법

1.㉒ 2.㉑

1. 어휘·어법 (관용 표현의 의미 구조)

정답해설 : ㄴ(뒷북을 치다)과 ㄹ(무릎을 치다)의 서술어는 둘 다 '치다'이다. 그런데 ㄴ에서는 의미 쏠림이 발생하고 ㄹ에서는 의미 쏠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로 볼 때, 서술어 '치다'는 의미 쏠림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용 표현의 서술어를 보면 의미 쏠림이 발생할지 알 수 있다고 한 ㉒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㉓ '바가지'를 씌우다'의 '바가지(터무니없이 많은 요금이나 물건 값)'와 '바가지'를 긁다'의 '바가지(아내가 남편에게 늘어놓는 불평이나 불만의 소리)'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며, 의미 쏠림 이후에도 이러한 의미 차이는 유지된다. ㉔ ㉕의 ㉖는 '닭 잡아먹고(A) 오리발을 내밀다(B)'이며 ㉗는 '오리발을 내밀다'이다. 요소의 생략 과정에서 '오리발을 내밀다(B)'만 남았으므로 'B'로 의미 쏠림이 일어났다고 본 것은 적절한 이해에 해당한다.

2. 어휘·어법 (인용 발화의 개념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첫 문장에 따르면 '인용 발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남에게 전달하는 말'이다. 그런데 ㉑의 경우 자신의 기쁨을 청자에게 보고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여기에 쓰인 '-답니다'의 형태는 인용 발화의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㉑의 '-답니다'는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 주는 함소체의 종결 어미'이며, 나머지 인용 발화를 의미하는 형식 '-답니다'는 '-다고 합니다'의 준말 형태이다.

독서

3.㉔ 4.㉒ 5.㉑ 6.㉔ 7. ㉑

[3-7] 인문, '동양에서의 천(天) 개념의 변천 과정'

지문해설 : 동양에서 다양하게 이해되었던 '천(天)'의 개념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천(天)'의 개념이 '자연천(自然天)→상제천(上帝天)→의리천(義理天)'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각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와 그 개념이 당대인의 삶에 미친 영향 또한 밝히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동양에서의 '천(天)' 개념의 변천은 그 개념이 지닌 한계가 보완되며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의 위상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천(自然天)'의 개념 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을 할 수 없었으며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를 알 수 없었는데, 이는 '상제천(上帝天)'의 개념이 출현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의리천(義理天)'은 '상제천(上帝天)'이 억압의 성격을 나타냄에 따라 출현한 것이다.

[주제] 동양에서 '천(天)' 개념이 변화해 온 과정과 그 양상

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의하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인식되어 왔다. 즉 천은 인간에게 자연 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오답피하기] ㉑ '천명(天命)'은 '상제천(上帝天)' 개념 하에서 가치중립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등장하였다. ㉒ 동양에서는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동양에서 천은 현실 세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㉓ '자연천(自然天)' 개념에서는 천을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㉕ '내면화된 천'은 '상제천(上帝天)'이 아니라 '의리천(義理天)'과 관계가 깊다.

4.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동양에서 '천(天)'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자연천(自然天)→상제천(上帝天)→의리천(義理天)'의 과정으로 '천(天)' 개념이 바뀌어 왔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㉔의 '개념의 의미 변천'이다.

5. 비판적 사고(정보 이해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자연천(自然天)' 개념 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인간은 '천(天)'을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했다. 이는 '자연천(自然天)' 개념 하에서 인간이 자율적 존재가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오답피하기] ㉒ '상제천(上帝天)'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력 행사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은 타율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㉓ '의리천(義理天)' 개념에서 천은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㉔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의리천(義理天)' 개념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천이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었다. ㉕ 천명 의식이 수정되면서 의리천 개념이 '의리천(義理天)'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타율성은 축소되었다.

6.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개념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ㄱ은 천을 자연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예이므로 '자연천'에 해당한다. 천의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한 ㄴ도 역시 ‘자연천’에 해당한다. ㄴ에서 ‘그와 같이 되도록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는 ‘상제’에 대응되므로 ㄴ은 ‘상제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ㄷ은 수정된 천명 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의리천’에 해당한다.

7. 어휘·어법(어휘의 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㉔는 ‘드러나는 기미, 경향, 느낌 따위가 보통 정도보다 뚜렷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①이다. ①의 ‘질어’는 폭우가 내릴 기미가 뚜렷해졌음을 의미한다.

[오답피하기] ② ‘액체 속에 어떤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진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③ ‘안개나 연기 따위가 자욱하다.’는 의미이다. ④ ‘일정한 공간에 냄새가 가득 차 보통 정도보다 강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⑤ ‘그림자나 어둠 같은 것이 아주 뚜렷하거나 빛깔에 아주 검은색이 있다.’는 뜻이다.

문 학

8.㉔ 9.㉓ 10.㉑

[7-10] 고전소설 - 남영로, ‘옥루몽’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구운몽>의 전체적인 구성을 따르면서도 이를 생동감 있게 개작한 소설이다. 천상의 선관이 인간으로 태어나, 사대부 남성으로서 모든 이상적인 조건을 두루 갖추고 벼슬해서 부귀를 누리며 여러 여성들의 사랑을 얻는다. 그러나 <구운몽>과는 달리 불교적인 깨달음을 내세우지 않았고 부귀와 사랑을 얻는 과정이 치열한 대결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창곡의 여러 처첩 중에서 기생인 강남홍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데, 여기에는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산촌의 한미한 선비인 양창곡이 중앙에 진출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횡포를 일삼던 세력과 대결하여 승리하는 것을 통해, 일신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여 부패 타락한 생활을 서슴지 않는 통치자들의 행태와 모순으로 가득 찬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주제] 부패한 현실 정치에 맞서는 영웅의 승리

8.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옥피리 연주의 곡조는 양창곡이 잘 알고 있는 곡조였다. 따라서 강남홍이 연주한 곡을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④, ⑤ 강남홍과 양창곡의 연주는 천지자연조차도 감응하게 하는 연주곡이다. 이 연주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묘사되었으며,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고도 할 수 있다.

9.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ㄱ과 관련하여, 14회의 제목은 이후에 있게 될 옥피리 연주를 암시하고 있다. ㄴ과 관련하여, 서술자는 뇌

천풍이 강남홍에게 달려들자마자 말에서 떨어졌다고 한 다음에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다음 회를 보시라’라는 선전 문구도 사용하고 있다. ㄷ과 관련하여, 14회의 첫 대목은 13회의 마지막 장면을 자세히 반복 부연 설명하고 있다. ㄹ과 관련하여, ‘각설’이라는 상투어가 쓰이고 있다.

10.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활용)

정답해설 : ㉑에서 뇌천풍은 강남홍의 공격에 깜짝 놀라 도망하고 있다. 이미 대결이 끝난 다음에 뇌천풍이 도망가는 장면이므로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적절하지 않다.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사면이 모두 적에게 포위된 경우와 고립된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오답피하기] ② ‘기사회생(起死回生)’은 ‘중병 등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 회복됨’을 뜻한다. ③ ‘삼십육계(三十六計)’를 놓다’는 ‘도망을 치다’를 뜻하며, 사자성어를 활용한 관용구이다. ④ ‘혼비백산(魂飛魄散)’은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뜻한다. ⑤ ‘이란투석(以卵投石)’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우리 속담에 대응하는 사자성어이다.